

‘황소 뜻심’으로 올시즌 일 낸다

KIA 소띠 선수들 새해 포부

기축년(己丑年)인 2009년, KIA 타이거즈 'V10'을 향한 여정의 중심에 소띠들이 선다. KIA는 지난해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씨름하느라 4강 탈락의 쓴 잔을 마시며 1997년 이후 이어져 온 'V10'의 꿈을 끊임없이 했다. 하지만 아쉬움 속에서도 희망은 빛났다. 거센 세대교체 바람속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키운 1985년 생 '소띠 3인방' 이용규·나지완·이범석 그들이 그 주인공이다.

기축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겠다는 3인방은 2009시즌 가장 눈여겨 봐야 할 투·타의 필승카드. 공수주 3박자를 고루 갖춘 이용규는 진화를 거듭하며 KIA의 주전 외야수는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야수로 무섭게 성장했다. 황소 같은 뜻심과 저돌적인 기동성으로 베이징 올림픽 테이볼 세터로 맹활약을 했던 이용규는 2009년, 'WBC 장악'과 '장타(長打) 장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다.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로 병역혜택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이용규는 WBC출전을 사실상 확정 짓고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야구를 위해 헌신해 온 선배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내가 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선배들의 명맥을 잇고 우리 야구의 저력을 과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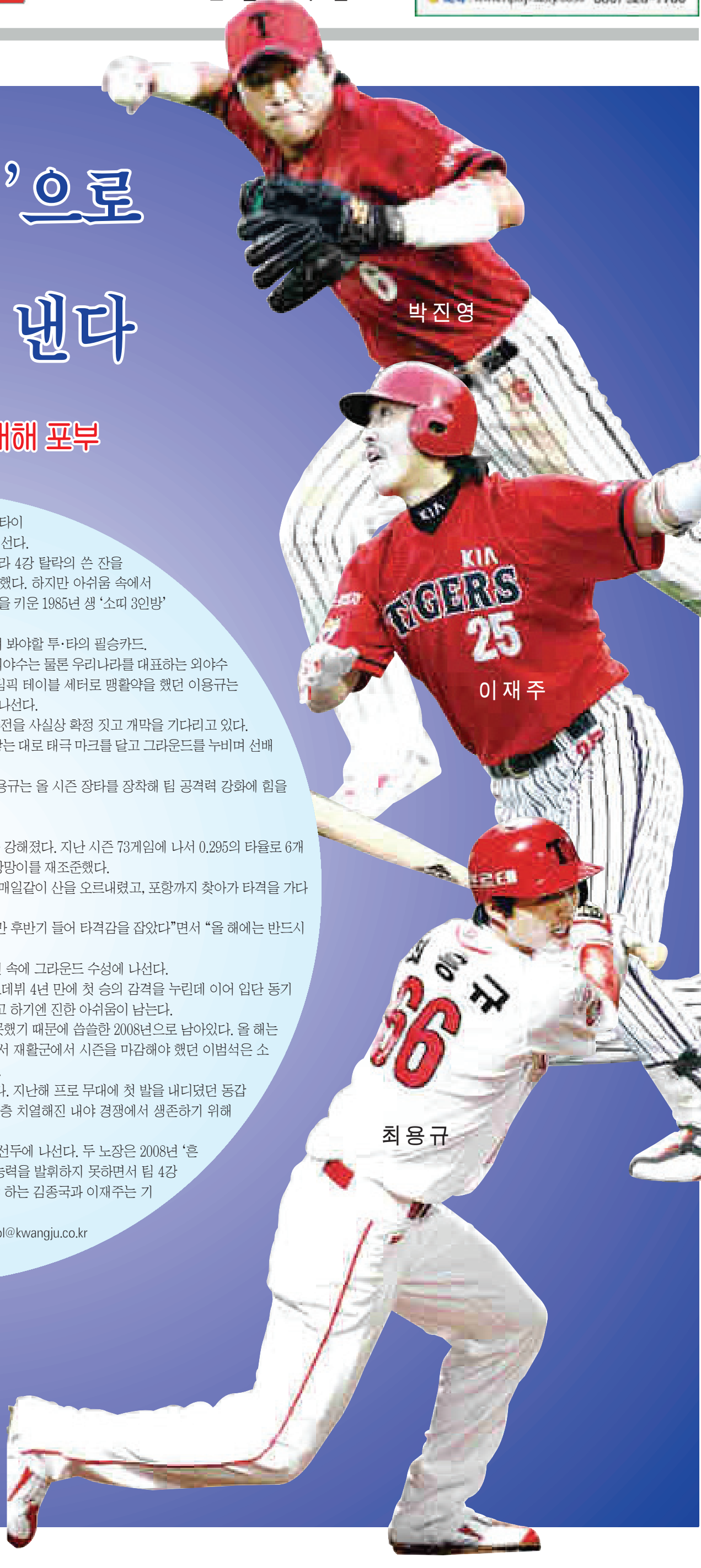
팀의 'V10'도 꼭 이루고 싶은 새해 목표다. 재치있는 타격과 기동성을 갖춘 이용규는 올 시즌 장타를 장작해 팀 공격력 강화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지난 가을 캠프에서도 웨이트에 역점을 두며 변신을 준비했다. 이용규가 앞장 서서 끄는 타선은 차세대 거포 나지완이 뒷받침한다. 호랑이 군단 사상 첫 신인 4번타자 나지완은 험난한 프로의 벽에 부딪히면서 한층 강해졌다. 지난 시즌 73게임에 나서 0.295의 타율로 6개의 홈런을 쏘아올렸던 신인 나지완은 프로 적응을 끝내고 불박이 4번 타자를 향해 방향미를 재조론했다. 나지완은 스토브리그를 치열하게 보냈다. '빅 초이' 최희섭과 훈련 파트너를 이뤄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고, 포항까지 찾아가 타격을 가다 들었던 나지완은 팬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KIA 우타 거포의 탄생을 예고한다. 호رن 훈련도 즐거웠다는 나지완은 "지난 시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고전했지만 후반기 들어 타격감을 잡았다"면서 "올 해에는 반드시 '유망주' 꼬리표를 떼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낸다.

마운드의 '셋발' 이범석은 이용규와 나지완이 들쭉하게 버티고 있는 타선의 지원 속에 그라운드 수성에 나선다. 올해로 프로데뷔 5년차. 이범석은 지난해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앞세워 프로데뷔 4년 만에 첫 승의 감격을 누리며 이어 입단 동기 윤석민과 원투펀치를 이루는 등 꿈같은 한 해를 보냈다. 하지만 최고의 한해라고 하기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으로는 입단 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팀이 시즌 끝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쓸쓸한 2008년으로 남아있다. 올 해는 반드시 가을잔치에서 공을 던지겠다." 데뷔 후 첫 100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재활군에서 시즌을 마감해야 했던 이범석은 소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최상의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다시 설 계획이다.

두 번째 시즌을 맞는 내야수 최용규와 박진영도 소띠 돌풍에 동참한다. 지난해 프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던 동갑내기 두 선수는 묵묵히 팽방울을 울리며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한층 치열해진 내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최용규와 박진영의 움직임은 더 분주해질 전망이다.

1973년생 노장 김중국과 이재주는 노련함으로 소띠 행렬의 선두에 나선다. 두 노장은 2008년 '흔들리는 내야'와 '우타거포 부재'라는 악재 속에서 100%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팀 4강 견인에 실패했다. 가을 잔치를 향해 후배들을 이끌어야 하는 김중국과 이재주는 기축년을 자존심 회복을 위한 원년으로 삼았다.

/김어물기자 wool@kwangju.co.kr



2월11일 이란과 4차전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희망이 보인다. 한국 축구가 소띠해인 2009년 1월부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따기 위한 레이스를 재개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월20일 제주도에서 해외파를 제외한 국내 K-리거로만 23명을 소집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2월11일 이란과 4차전은 최종예선 레이스의 반환점을 도는 일전이다. 현재 2승1무(승점 7)를 기록해 같은 B조의 이란(1승2무·승점 5)과 북한, 사우디아라비아(이상 1승1무1패·승점 4), UAE(1무3패·승점 1)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허정무호는 이란 원정에 이어 북한(4월1일·홈), UAE(6월6일, 원정), 사우디아라비아(6월10일·홈), 이란(6월17일·홈)과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를 차례로 치른다.

'올림픽 금' 영광 다시 한번

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에 오른 한국

야구가 3월 열리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영광을 이어간다. WBC는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해 최고의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대회로 2년 전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국제야구연맹(IBAF)이 야구 최강국 결정전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만들었다. 한국은 베이징올림픽에서 넘치는 패기로 세계를 정복한 투타의 젊은 괴물이 다시 한번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프로야구에서 새 소속팀을 물색 중인 김병현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불박이 외야수를 껴찬 추신수가 가세, 해외파의 자존심을 살릴 전망이다. 또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에 입단하자마자 첫해 33세이브(1승5패)를 올린 임창용과 내년부터 그와 한솥밥을 먹을 이해찬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오초아 경쟁자로 부상

한국여자골프공단이 한층 강해진 모습으로 200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찾아가

■ 올 한국스포츠 이것을 지켜보라

- ① 축구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 ②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선전 기대
- ③ 신지애·위성미 LPGA 돌풍
- ④ 제2의 박태환·김연아는 누굴까
- ⑤ 정부-체육회 '구조조정' 신경전

를 찾아가

특히 2008년 8월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여자 오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세상을 놀라게 한 후 LPGA 투어 미즈노클래식과 ADT 챔피언십까지 석권, 정식 회원이 아니면서도 3승을 수확하며 2009시즌 최고의 기

대주로 떠오른 신지애(21)가 정식으로 입성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신들도 신지애를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하면서 2009년 시즌 LPGA 투어의 열기를 높이고 있다.

여기다 장흥 출신 위성미(미국명 미셀 위)도 켈리파인스업을 통해 투어에 뛰어들어 신지애와 신인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흥미가 고조되고 있다.

과학적 훈련방법 시급

2008년 한국 스포츠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여름 소년 박태환-겨울 소녀 김연아'의 성공 스토리에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다. 두 스타가 절정의 인기와 최고의 실력을 구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현실에서 둘의 뒤를 이어 수영과 피겨에서 '제2의 박태환·김연아'로 떠오를 유망주들이 나타나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박태환과 김연아는 단지 천재성만으로 세계 정상을 포효하는 게 아니다. 타고난 신체적 특성에 과학적인 훈련과 개인적인 노력의 결정체다.

미래의 금메달 유망주를 혹사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자신의 종목을 즐기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도자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과학적 훈련방법의 도입이 급선무다.

연초부터 정면 충돌 가능성

체육계는 새해에도 '구조조정'이라는 해묵은 과제로 뜨거운 논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수년째 체육단체 구조조정안을 놓고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상반된 논리를 내세우며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는 연초부터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농후하게 감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단 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시킨 뒤 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완전 통합을 외치는 체육회는 강경 투쟁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전국민의 감동을 자아냈던 한국스포츠는 기축년 새해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체육회의 힘겨루기라는 짜증나는 소식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연합뉴스